

OECD “2차 발병땐 일자리 8천만개 증발”

회원국 4분기 실업률 12.6%
 코로나19 억제 성공해도 10%
 내년에도 회복 힘들어
 한국 실업률 4~5%대 선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올해 실업률이 두 자릿수대로 치솟을 수 있다고 OECD가 전망했다. 코로나19 사태의 충격과 속에 “내년 이후에도 일자리가 회복되지 않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OECD는 7일(현지시간) ‘연례 고용전망보고서’에서 37개 회원국 평균 실업률이 올해 4분기 12.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말 5.3%의 갑절을 웃도는 전망치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2차 발병’ 시나리오를 가정한 것이다.

12%대 실업률은 OECD 회원국 전체 일자리 6억6600만개 가운데 8000만개가 사라진다는 의미로, 독일 또는 터키·이란의 인구와 엇비슷하다고 경제전문매체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설명했다. 내년 실업률은 다소 하락하면서 8.9%를 나타낼 것으로 봤다. 코로나19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최상의 시나리오’ 하에서도 실업률이 올해 4분기 9.4%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7.7%로 소폭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도 훨씬 심각한 일자리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OECD는 우려했다. 당시 OECD 평균 실업률은 최고 8.66%를 기록한 바 있다.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 세계 실업률이 대공황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일러도 오는 2022년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회원국별로, 미국의 실업률은 올해 4분기 12.9%, 내년에는 11.5%를 각각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2차 발병’을 가정한 수치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됐다. ‘2차 발병’ 시나리오에서 올해 4분기 5.1%, 내년 4.7%를 각각 나타낼 것으로 OECD는 예상했다. 코로나19가 감소하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올해 4분기 4.8%, 내년 4.4% 실업률을 각각 내다봤다. 전 세계 일자리가 줄면서, OECD 평균 노동시간은 코로나19 사태 직후 첫 3개월간 12.2% 감소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12월 노동시간이 1.2%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고용시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도입한 지원정책들을 성급히 철회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위기가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면서 “회원국들이 단계적으로 경제활동을 재가동하는 상황에서 거시경제 정책과 분야별 정책의 조합으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보편적인 고용보조금 지원을 줄이고, 여전히 섰다운 상태에 놓인 특정 부문에 초점을 맞출 것을 권고했다. 스테파노 스카페타 OECD 고용노동사 회국장은 “이제는 전폭적으로 보편적인 지원책에서는 벗어나야 할 때”라면서 “일부 기업은 단기·중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노동자들이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명예훼손 법정 떠나는 조니 뎀 미국 할리우드 스타 조니 뎀이 7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고등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 소송 첫날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뎀은 전 부인 앤버 허드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영국 더 선지의 보도에 반발, 이 신문의 발행인인 뉴스그룹뉴스페이퍼(NGN)와 주필을 고소한 바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돈주고 대리시험 와트스쿨 부정입학했다” 조카 신간서 과거 폭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대 와트 스쿨에 돈을 주고 대리시험을 통해 입학했다는 입시 부정 의혹에 대한 증언이 7일(현지시간)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조카딸 메리 트럼프(55)가 곧 펄펄 폭로성 책 ‘이미 과한데 결코 만족을 모르는 나의 가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냈는가’에서 이같이 주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을 ‘슈퍼천재’라고 자화자찬해오면서 대표적 사례로 와트 스쿨 학력을 꼽아왔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이 책을 입수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프트랜드 학으로 통학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명문으로 알려진 펜실베이니아 대학에 진학하기로 결심했지만, 입학할 성적이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 메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누나, 즉 자신의 고모 메리앤이 평소 트럼프 대통령 대신 숙제를 해줬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나가 대리 시험까지 치를 수는 없었기에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성적이 좋았던 친구 조 서피로에게 자신 대신 대학입학 자격 시험(SAT)을 치르게 했고, 합격 후 친구에게 후하게 사례했다고 메리는 책에서 주장했다. 책에 따르면 ‘미래의 대통령’은 어린 시절부터 남들을 속이거나 조롱하기를 좋아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보도했다. /연합뉴스



4개월만에 선보인 뉴욕필 현악4중주 미국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원들로 구성된 현악4중주단이 7일(현지시간) 링컨 센터 건너편의 노변 공원에서 슈베르트의 곡을 연주하고 있다. 뉴욕 필이 코로나19 사태로 3개월 연주회를 중단한 이후 첫 대중 공연이다. /연합뉴스

마스크 기피 브라질 대통령 코로나19 양성 판정...관저 격리

의료진 “건강 상태 양호한 편”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국영 TV 브라질과 인터뷰를 통해 전날 시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 5일부터 기침과 고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세를 보였

으며 전날 증상이 악화해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군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 대통령실 의료진은 말라리아약의 유사 약물인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처방했으며,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전날 밤과 이날 오전 등 두 차례에 걸쳐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관저에서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난 3월 7~1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미국을 방문했다가 동행한 인사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세 차례 걸쳐 검사를 받았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검사 결과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으나 관련 문건을 공개하지 않아 소송전으로 비화했고, 연방대법원은 세 차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맞았다는 문서를 공개했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보건 당국의 권고를 무시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브라질리아 시내를 활보하며 지지자들과 거리낌 없이 악수하고 포옹하고 다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성폭행 피의자가 프랑스 새 내무장관...사퇴요구 비등

엘리제궁 “임명 걸림돌 없어”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프랑스의 새 내무장관이 자신의 성폭행 의혹에 대한 수사가 여전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찰을 통솔하게 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랄드 다르마냥(37) 내무장관이 취임한 7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내무장관 집무실 근처에서는 20여명의 페미니스트 활동가들이 시위를 벌이고 “다르마냥은 강간범”이라면서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이 시위에 나선 것은 다르마냥 장

100만명 사는 亞 최대 인도 슬럼가 코로나19 신규 확진 1 명으로 ‘뚝’

주민 통제, 공격적 검사 효과
 인도의 코로나19 ‘핫스팟’ (집중 발병 지역)이 될 것으로 우려됐던 뭄바이의 아시아 최대 슬럼가에서 극적으로 감염 확산이 통제되고 있어 화제다. 8일 PTI통신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뭄바이의 슬럼가 다라비 지역의 전날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단 한 명에 그쳤다. 이 지역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한 명으로 집계된 것은 지난 4월 5일 이후 3달 만에 처음이다. 이곳에서는 4월 1일 첫 감염자가 나왔고 지금까지 2335명의 누적 확진자가 발생했다. 다라비의 방역 상황이 눈길을 끄는 것은 이곳이 ‘사회적 거리 두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악명 높기 때문이다. 영화 ‘슬럼독 밀리언어’의 배경인 다라비의 전체 면적은 2~2.5km(가량)로 여의도(2.9km)보다도 작지만, 이곳에 몰려 사는 인구는 50만~100만명(가량)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한 집에는 7~8명 이상이 몰려 산다. 일반적인 계단 공간이 따로 없기에 주민은 사다리를 통해 2층으로 이동한다. 이 같은 공간에서 지난 5월 연일 수십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자 현지 언론은 ‘대폭증’이 우려된다며 집중적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하루 확진자 수는 6월 들어 10명대로 줄었고 이번에는 1명으로 감소한 것이다. 다라비의 바이러스 확산세가 주춤한 것은 강력한 주민 통제 조치와 각종 지원 등 민관이 총력 대응한 결과라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다. /연합뉴스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